

함께하는
공방은
이웃

November 2018 vol.181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멘토'이자 '멘티'입니다.

저는 다섯 살 꼬꼬마 시절 태화 유아체능단 사슴반으로 태화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태화를 오가던 아이가 자라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태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문을 두드렸는데,
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멘토링 활동으로 강남지역에 살고 있는 중학생 멘티와 1: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멘티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기 급했는데, 멘티와 함께 계획을 하고 멘토링을 이어나가면서 점차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티로 만났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주춤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멘토링 활동에 임해야 할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멘티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올해 봄, 멘티를 만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멘티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어, 멘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멘티의 눈높이에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추억과 배움이 있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태화복지관에 감사를 전합니다.
태화의 여러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글 정금아 자원봉사자(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 멘토링)



04



08



10



16

November 2018 VOL.181

Contents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04 자곡동에 태화가 떴다!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 06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아웃더하기」
- 08 웃음과 낭만이 있는 「제1회 태화 별빛마켓」
- 10 셔틀버스로 복지하다 「셔틀복(福)」
- 12 태화 수영 선수반의 비상
- 14 복지관 환경개선 「공간으로 복지하기」
- 16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태화 상상하는 대로」

- 18 태화가 만난 사람
사랑빵회 재능나눔봉사단 엄지연 회장
- 20 TAIWHA NEWS
- 23 후원소식
2018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 24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표지 재능나눔봉사단 - 서금숙, 길태섭, 이정심, 황경, 엄지연(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 / 촬영 : 안재현 작가(재능기부)

2018년 11월 발행(통권 181호)

- 발행인 윤연주 ● 편집인 이사라, 정민지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기획&인쇄 화이트 Tel.512.3747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어린이집, 태화초록교실, 태화해뜨는샘, 강남구청소년심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태화어린이집 Tel. 2040.1680 ● 태화초록교실 Tel. 2040.1698 ● 태화해뜨는샘 Tel. 2040.1780 ● 강남구청소년심터 Tel. 512.7942
-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Tel. 2040.1690



자곡동에 태화가 났다!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글 김혜림 대리(사례관리팀)

이제는 자곡동 강남LH3단지에서도 태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2017년 5월부터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세곡동 주민센터와 함께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LH3단지에서 지역주민과 가깝게 만나며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들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정기적인 사회복지상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일상생활등을 모니터링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세대는 세대에 맞는 자원을 연결합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세대, 깊이 있는 사회복지상담이 필요한 세대,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세대는 사회복지사가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복지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진행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니, 복지센터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듯합니다.

상부상조하는 이웃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복지센터에서는 다시금 이웃 간의 정을 모락모락 피우는 이웃모임을 진행합니다. 단지 내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응원하고 돕는 든든한 동네이웃을 만듭니다. 모임의 활동, 주기, 방법 등 모든 과정들은 참여자들의 논의로 진행됩니다. 기존 모임뿐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모임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를 더 잘 돕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 세곡동 주민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자애복지관, 강남구청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주민들을 잘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힐링상담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복지재단,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다각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복지센터를 알립니다.

복지센터는 한 달에 한번, 315동 앞에서 열린 복지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가 쓰여 있는 파란색 천막아래에서 복지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복지센터를 알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설명합니다. 복지센터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복지상담도 진행합니다. 열린 복지상담뿐만 아니라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센터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곁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 사업내용** 정기방문,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밀반찬, 후원금 등)안내 및 연계, 이웃모임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 장소** 강남LH3단지 309동 1층 커뮤니티실 내
- 이용방법** 운영시간 내 센터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복지 서비스는 회의를 통해 선정여부 확인 후 진행됩니다.
- 문의** 강남L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 010-4430-1659, 070-8160-1659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이웃더하기

글 고효영 사회복지사(지역조직화팀)

태화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세곡동은 2014년 이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곡동 지역에 새롭게 터를 잡은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여사는 가운데, 임대와 분양 아파트, 일반 주택까지 사는 형태까지 다양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가 조성되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고 소통할 공간과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화복지관은 세곡동,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며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남을 이어갔을까요?

①

밤토리도서관에서 주민을 만나다

주민들과 인사 나누며,
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꾸러가는
'밤토리 도서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주민
공동시설이기도 합니다.

②

주민 인터뷰로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다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 "입주자 대표단과
임차인 대표단 관계가
좋지 않아 아쉬워요.",
"서로 인사 나누며 지내면
좋겠어요." 등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책모임을 계획하다

밤토리도서관 임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모임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책 읽고 차도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해 책을 매개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4

주민모임 확장의 토대를 마련하다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강남구평생학습관의 지원으로 다양한 주민모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이웃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을 나누다

꽃꽂이, 캘리그래피, 미술, 책모임, 단소 총 5개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들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강남한신휴플러스 6단지 아파트는 234세대의 임대주택과 144세대의 분양주택이 공존하는 아파트(Social-Mix)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단지 내 주민모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민대표단의 동의와 협력 하에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인 이웃더하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강남한신휴플러스 6단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임과 활동이 단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책모임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모임에서 배운 것을 단지 내 다른 주민들에게 나누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밤토리학습관을 중심으로 마련된 여러 주민모임을 시작으로 한신휴플러스 6단지 내 주민모임이 활성화되고, 이웃과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정이 넘치는 단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화복지관 지역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웃더하기'는 오늘도 계속 됩니다. 살맛 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태화를 찾아주세요.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주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협력하는 태화가 되겠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제1회 태화 별빛마켓」

클 번주희 대리(지역조직화팀)



활기로 가득찬 별빛마켓

〈제1회 태화 별빛마켓〉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무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2017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서부터 기획했습니다. 후원 물품 판매가 중심이 되는 기존 바자회와 달리 베품시장이라는 콘텐츠로 지역주민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했습니다. 주로 낮에만 운영해온 마을축제를 저녁 시간대로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여유를 갖고, 더욱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한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야시장에 방문하여 학습하며 더 세밀하게 별빛마켓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날씨는 폭염이 한풀 꺾인 9월 14일(금요일 저녁)에 하기로 했고, 장소는 그동안 야외학습장으로만 활용되어 온 4층 옥상을 개방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복지관 곳곳에 홍보하고, 복지관 인근 주택단지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상점에도 홍보하니,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물품으로 후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흥을 안겨준 해피팝동아리(위)
 남다른 재능을 보여준 장기자랑
 참여자 기념사진(아래)

별빛마켓의 핵심인 '별빛'을 표현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관리팀 기사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고심 끝에 마치 공중에 떠있는 별과 같이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도 생각을 모으니 행사장 분위기가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손자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오신 어르신, 양손 무겁게 완판하시겠다는 기대를 갖고 물건을 가져오신 총 32개 팀의 판매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재미를 느꼈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은 흐뭇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 손수 커피를 내려 준비해 오신 주민은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며 뿌듯해하셨고, 함께한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가을밤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살맛 나는 동네를 꿈꾸며 모인 '오! 리엔' 나눔이웃 분들은 큐브스테이크와 김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판매하였고, '마미들' 부스에서는 준비해온 모든 음식을 완판하며 기뻐했습니다. 태화의 자랑인 해피팝(POP)과 토마토 어린이중창단에서는 특별한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장기자랑으로 참여한 5팀은 마음껏 실력을 뽐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50명이 넘는 주민이 웃음과 추억으로 공간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플라마켓과 푸드코트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1,301,000원의 수익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처음 진행된 행사였지만 '협력'과 '공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다들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좋아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뜨는샘 셀리(담당자)

막내 아이의 첫 봉사였어요.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희아윤이가족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의 참여가 높아서인지 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활기차고 재미있었어요~
 -오리엔 먹거리부스 셀리



셔틀버스로 복지하다 '셔틀복(福)'

글 이사라 대리(지역조직화팀)

우리 동네 앞을 지나는 태화복지관 셔틀버스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태화복지관에서는 총 4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호차는 개포·대치동 방면, 2호, 3호차는 세곡동 방면, 4호차는 수서·일원동 방면을 매일 부지런히 순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태화 셔틀버스가 달라진 점 눈치채셨나요?

태화복지관에서는 2017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복지 메시지를 셔틀버스로 전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셔틀버스는 지역사회를 매일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니 가장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습니다.

첫 시작으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웃과 그리고 가족에게 인사 나눔을 실천하는 메시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셔틀버스 메시지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와, 비슷한 내용을 모아 2개의 메시지를 최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웃과 인사하는 순간, 동네에 정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 애쓴 가족을 꼭안아주세요. “수고했어!”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말, 고마워 사랑해’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신나게 달리는 태화 셔틀버스를 마주친다면, 셔틀버스 창가에 새로 붙은 메시지를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마음에는 따스한 온기가,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태화 셔틀버스는 앞으로도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생각이 자라도록 복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동네 행복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무엇이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또 기대해 주세요.

태화수영 선수반의 비상

어린이수영프로그램이 도입되어가고 있는 수영 선수반 & 마스터즈반을 소개합니다.



글 이대욱 사회체육지도교사(사회체육팀)

Q. 수영 선수반 목표는?
태화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영 회원들에게 보다 높은 운동에 대한 목표와 동기유발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취미로 수영을 배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수영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여 타인과의 경쟁과 자신의 기록 경신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반입니다.

Q. 태화 수영 선수반의 시작한 배경은?
태화복지관의 수영장은 2018년 현재 월 1700명 이상 많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강습반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0년 12월 어린이 수영 선수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2018년 태화 수영 선수반의 규모는?
현재 수영 선수반 15명, 마스터즈반(2개반) 24명의 정원으로 총 40여 명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매일 훈련 중에 있습니다.

Q. 태화 수영 선수반의 성과는?
어린이 수영 선수반 개설 이후 2011년 첫 서울시 교육장배에 참가하여 5개 종목 입상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시 교육장배 수영 대회 다수 입상, 이천시 전국 마스터즈 대회



종합우승, 서울시 성북구 수영 대회 종합우승, 전국 마스터즈 수영 대회 3년 연속 단체종목 입상, 2018년 서울시 강남/강동교육지원청 28개 종목 입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태화 수영 선수반의 운영 방향은?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태화 수영의 슬로건입니다.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 지도와 고강도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경쟁력 있으며, 선수반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영선수반 & 마스터반을 기대해주세요!



〈태화 수영 선수반〉
주영서 일원초등학교 2학년

6살 때 태화에서 Fun Fun 키즈수영으로 처음 수영을 시작했어요. 7살 때에 태화유아체능단과 개인지도를 통해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 선수반에도 등록하게 되었어요. 선수반에 들어와서 수영을 더 잘하게 되었고, 점점 기록도 좋아지고, 수영대회서 상장과 메달도 많이 받아서 정말 뿌듯해요.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놀러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때 아주 행복해요. 1학년 겨울에 서울시교육감배 수영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 했어요. 수영을 계속 열심히 해서 서울시교육감배수영대회에서 꼭 1등 하고 싶어요. 1등하면 아빠가 큰 선물 사주신 다고 하셨어요.



〈태화 수영 선수반〉
신동렬 수서중학교 2학년

제가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인데, 수영 선수반에는 초등 3학년 때 입단테스트를 통과하여 입단하였습니다. 선수반에서 체중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며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연습해 5학년 때 강남구교육장배 수영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로 주어진 소중한 메달이었습니다. 앞으로 진로로 운동과 관련된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문 수영선수는 아니더라도 수영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수영선생님도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환경개선 공간으로 복지하기

글 김영삼 팀장(시설관리팀)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시작 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1995년 수서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세련된 건축설계와 튼튼하고 좋은 자재로 멋지게 지어진 태화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로 손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태화복지관이 수서동에 자리매김한지 2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화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태화를 찾아주시는데, 세월을 이길 장사 없듯이 태화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실 내부에도 때때로 손보고 고쳐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복지관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팀은 복지관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에 따라 연중 크고 작은 공사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간으로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2018년에도 태화의 곳곳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태화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증별로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층에는 미화원 휴게실이 조성되었습니다. 복지관이 문을 여는 아침 6시부터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태화의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미화원분들이 일과 중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휴게실을 정비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새로워진
피아노교실(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력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유아체능단(아래)





수납공간 마련과 싱크대 교체, 조명 등을 보수 한 요리교실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음악실은 어린이들의 피아노 연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매일 울려 퍼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친구들의 낙서로 책상과 벽면이 까맣게 되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음악실 리모델링을 통해 피아노실 벽지는 핑크색과 하늘색으로 화사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책상이 있는 공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액자를 걸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피아노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연주가 한층 더 맑고 즐겁게 들립니다.

2층에서는 태화유아체능단이 새로워졌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태화유아체능단은 2018년 봄 학기 23기 모집을 앞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력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벽면 도색과 교실 바닥 및 복도 타일을 교체하였고, 화재를 대비한 시설 정비 공사로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늘 우선순위로 살피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육관, 가족 도서실 등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태화는 앞으로도 태화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뿐 아니라, 쓰임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빚으며 복지를 실천하는 공간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4층에는 요리교실과 작은 음악실이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요리교실은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고, 사랑빵회 재능봉사단이 빵을 굽고, 발달장애인들의 요리수업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음식물을 조리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만큼,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노후된 시설물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요리교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별 수납공간을 마련하였고, 조명 및 인테리어 보수로 요리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이전보다 깨끗하고 편리해진 공간에서 더 맛있고

우레탄코팅한 바닥과 라인도색,
누수 보수와 방염압막 커튼 설치한 체육관(위)
주민공간을 마련한 가족도서실(아래)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태화 상상하는 대로

글 권지혜 대리(총무팀)

태화비전 2021 GREAT HARMONY의 비전 중 하나인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태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i d e a

접수된 모든 아이디어를 소중히 검토하여 사업과 기관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에 태화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꽃 같은 당신에게”

‘꽃’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매개를 통해 타 부서 직원에게 감사와 응원,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꽃 당신’ 덕분에 오늘도 태화에 향긋한 꽃 내음이 퍼져갑니다.

“태화 뮤직데이트”

주 1회 출근시간, 사내방송 라디오를 통해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고 태화만의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아이디어로 ‘제안자와 관장님과의 데이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놀라 울기 시작하여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 비록 1회 진행된 뮤직데이트였지만, 덕분에 재미있는 추억 하나 선물 받았습니니다.

이렇듯 태화는 태화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가져다주는 작고 의미 있는 변화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아이디어 어때요? 한 번 봐줘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2018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직원들의 잔~뜩 부분 설렘이 담당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많은 수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직원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 싶었지만, 작년보다 10개나 많은!! 총 35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심사과정도 더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사로 관장님 및 각 부서와 부속시설 대표 1인,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에 의해 선정된 12개의 아이디어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2차 심사는 전 직원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는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조화롭고 즐거운 태화공동체 만들기 분야: 태화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상 속 감사의 마음 전하기 프로젝트 ‘우리, 조화로운 태화’>, <기관운영과 관련한 아이디어 분야: 복지관 이용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바닥안내판을 설치하는 ‘회원 이용편의를 위한 바닥안내판 설치’>, <신규 사업 아이디어 분야: 여름철 도서관 휴관기간 동안 1층 도서실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및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영화제를 진행하는 ‘무비위크(movie week) 우리 동네 칸영화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직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감탄을 자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태화의 곳곳에서 빛을 내며 반짝이도록 기대해주세요.



Q. 태화와 맺은 인연, 사랑빵회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2000년 3월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화유아체능단에 입학했어요. 아이를 체능단에 보내고, 저도 4월부터 태화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육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수영 배우는 엄마들이랑 수도도 많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층 로비에서 친한 엄마들이랑 티타임을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지금 빵 만드는 동아리에 일손이 부족하니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도와드리게 되었죠. 그즈음 저도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려고 제빵제과 수업을 듣고 있던 차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를 계기로 사랑빵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총무를 맡고, 회장까지 하게 되어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네요. 돌아보니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Q. 사랑빵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태화복지관에서 제빵제과 자격증반을 수강하던 분들이 좋은 뜻으로 빵 만드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랑빵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사랑빵회는 빵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9:30~13:00) 복지관 4층 요리교실에서 빵을 만들고요. 동아리 회원은 현재 총 17명인데, 평균 10명 내외로 활동에 참여해주고 있어요. 회비는 매월 활동에 참여할 때 15,000원이고 빵을 만드는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매월 만드는 빵 종류가 달라지는데, 단팥빵, 파운드케이크, 피자빵, 소세지빵, 초코쿠키, 마들렌 등 다양한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 한 번에 100개~200개 정도 만들어요.



태화가 만난 사람
사랑빵회 재능나눔봉사단
엄지연 회장

글 이사라 대리(지역조직화팀)



사랑빵회 제은나눔봉사단 영지연 회장

빵을 전달받으시는 분들은 태화복지관 선생님들이 간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배분하여 전달해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복지관 방과후교실 아이들 간식과 사랑의 도시락(밀반찬) 받으시는 이웃들, 세곡동 아파트 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눠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Q. 사랑빵회 활동을 통한 보람,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랑빵회 회원님들을 보면 정말 순수하게 봉사의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벌써 십 년 넘게 함께하는 분들도 많다보니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안부도 물어며 소소하게 즐거운 이야기들도 나뉘요. 빵을 만드는 활동도 재미있고, 맛있게 드실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 느껴져요.

Q. 앞으로 사랑빵회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요?
앞으로도 태화 사랑빵회 활동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한동안 신규 회원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동아리 인원이 많아지면 빵도 더 많이 만들고, 새로운 빵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회원들 중에는 연세가 있으시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못 나오는 분들도 한두 분 생기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동아리에 와서 사랑빵회가 활기차고 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회장을 연임해 왔는데, 사실 저는 오래전에 성동구로 이사를 가서 복지관 근처에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랑빵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복지관 가까이 살면서 발도 넓고 좀 더 적극성이 있으신 분이 회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Q. 지역사회 나눔으로 사랑빵회 동아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나름으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특히, 사랑빵회에 오시면 빵 만드는 활동도 재미있고요. 동아리에 함께하는 분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유아체능단에 아이 보내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사이좋게 오셔도 좋을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모임을 생각한다면 사랑빵회를 추천해 드려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사랑빵회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의 빵이 마음을 뽐기는 사랑빵회 제은나눔봉사단 회원들



태화 재능뱅크 「태화의 자랑인 92명의 태화인들」



태화 비전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걷어가는 태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직원이 직접 강사가 되어 이를 공유하는 '태화 재능뱅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그 첫 시작을 20년 이상 태화에서 근무하며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시설관리팀 류재식 대리님의 '태화의 수질관리 A to Z'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설 장비 하나하나에 그 명칭과 기능을 적어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대리님의 수질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화 재능뱅크를 통해 직원들의 숨은 재능이 발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태화인 선교여행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지난 10월 5일, 비 오는 가을 저녁. 작년에 이어 조선선교연구회 김학천 선생님과 함께하는 태화인 선교여행이 양화진과 정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멀고 낮은 나라에 찾아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현재 태화의 한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남한양수자인 「제2회 이웃사이 플리마켓」

지난 10월 20일 강남한양수자인에서는 '제2회 이웃사이 플리마켓'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에 처음으로 열린 미니 플리마켓이 카페 내에서 진행한 작고 소소한 베품시장이었다면, 이번 플리마켓은 베품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초등학생 기타 공연, 태화알림DAY 홍보행사,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사이 카페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단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사이 카페에서 진행하는 주민행사가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마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4w 러닝데이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와 부모 되기 「행복한 부모코칭」



강남구 평생학습의 날인 4w 러닝데이 프로그램이 2018년 6월~9월까지 태화복지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모코칭'은 맘&키즈 체험특강, 부모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양육 코치 및 능력을 배양하고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맘&키즈 플라워스토리텔링, 달크로즈뮤직, 부모교육으로 진행 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참여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태화어린이집 부모 참여 프로그램 「엄마, 아빠 선생님」



태화어린이집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인 '엄마, 아빠 선생님'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경험하시는 신입 아동 부모님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게 계획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의사선생님의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청진기로 진찰하는 경험해보기,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진행한 원예활동으로 미니정원 만들어 키워보기,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부채 만들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특별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태화해뜨는샘 지역마음건강강좌 「북 콘서트」

지난 9월 7일 초가를 저녁, 강남한양수자이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태화해뜨는샘과 카페아웃사이징이 함께 마음건강강좌를 열었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의 저자 옥명호 작가를 초청하여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신 경험과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서 작가와 함께 가을 저녁을 무르익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위한 마음건강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이 계속 소통하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태화해뜨는샘을 계속 응원해주세요.

강남구청소년쉼터 추석나들이 「인생 네 컷」



지난 9월 24일~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명절기간 대중교통(KTX)을 이용하여 민족 대이동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부산의 명소인 국제시장, 아리랑거리, 부산타워, 광안리해변, 송도해상케이블카, 해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행 중 청소년들이 직접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각자 최고의 사진 '인생 네 컷'을 추억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맛집과 게스트하우스 숙박을 체험하며 남다르지만 즐거운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동물 매개활동」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단법인 위드햅과 함께하는 '동물 매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10회기로, 활동견과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지원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 매개활동은 참여를 희망한 빌링슬리 아카데미의 이용 회원 12명과 12명의 발달장애인들과 2마리의 치료견 '친절하게 먹이주기', '함께 산책하기', '친밀감 형성하기'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 매개활동을 통해 치료견과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좋은 친구 되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태화초록교실 「초록사랑캠프」

태화초록교실에서는 지난 8월 9일~10일 양평으로 초록사랑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에게 먹이도 건네고 맛있는 피자과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숙소에서 물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원하고 재미있는 추억도 쌓았습니다. 더불어 초록교실 친구들은 스스로 샤워와 이불 정리도 해보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친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동행해주세요.



SPONSORSHIP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 지역조직화팀 2040-1632

CMS 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의 동의아래 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지로후원

매월 초 가정 또는 직장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입금번호** 7607040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통장입금

복지관전용 후원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3-839930, 외환은행 272-22-00173-6, 국민은행 790-01-0035-287, 우리은행 725-157495-13-003

온라인 후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네이버 해피빈에서 사이버 머니(콩) 후원 <http://happylog.naver.com/taiwha.do>

신한카드 아름스 포인트 기부(해당사이트에서 복지관 검색) <http://arumin.shinhancard.com>

직접후원

복지관 지하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식품, 생필품, 도서, 의류 등 물품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후원

지역 내의 상점, 학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후원활동입니다.

나눔 분야 (상점, 학교, 학원 등 업체에서는 이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 : 학원, 개인교습소의 무료수강지원
- 위생 : 미용실·목욕탕 무료이용지원
- 문화 및 예술 : 공연장, 극장의 무료공연관람지원
- 보건 및 의료 : 병원·의원·약국 등의 무료진료, 약품지원
- 외식 및 생활용품 : 마켓, 식당의 음식, 생활용품 등을 무료제공지원
- 교통 및 이동지원 : 운수회사의 이동지원

2018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2018.1~2018.9)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전년도사업지정후원금 이월금	47,468,407	결연후원금	7,075,000
전년도 비지정사업후원금 이월금	52,120,655	교육문화사업비	57,441,640
사업지정후원금	85,884,000	사례관리사업비	52,271,609
비지정후원금	83,145,380	서비스제공사업비	44,859,640
결연후원금	8,345,000	지역조직화사업비	6,933,750
외부지정후원금	53,026,000	이종범장학후원사업비	4,500,000
예금이자	80,654	후원홍보비	26,431,340
		복지관운영비	46,558,062
		이월금	83,999,055
합계	330,070,096	합계	330,070,096

Thanks to SPONSOR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일반후원

강다영	강용석	강은영	강푸른	강하영	문영숙	문용기	문용채	문지희	민옥희	이선복	이성숙	이성주	이소연	이수연
고경문	고기남	고미정	고애영	고우경	박건수	박명숙	박상선	박성영	박성분	이숙희	이순자	이영주	이원재	이원해
고유진	고은정	고인자	고효영	구본환	박성원	박성희	박세희	박수연	박순례	이원희	이 윤	이윤진	이은경	이은영
권성오	권소영	권영탁	권지현	권지혜	박순혁	박유신	박윤자	박은지	박재진	이은정	이은희	이정석	이정심	이정자
권현수	권혜경	권혜진	길경자	길기태	박종부	박주한	박주현	박지숙	박지영	이종은	이준석	이지연	이진교	이창준
김가윤	김경희	김기세	김기수	김기원	박지원	박항미	박현경	박현주	방궁호	이한영	이현규	이형욱	이호진	인윤희
김남희	김다숙	김다현	김덕형	김동준	방동환	방상익	방승찬	방정열	배경희	임덕순	임선빈	임성일	임이랑	임종필
김동희	김명란	김명희	김미나	김민경	배명희	배호균	배효범	백승훈	백재철	임채춘	임태희	임평화	임한샘	임혜원
김민정	김보영	김성욱	김성은	김세정	변주희	서유정	서정민	서창배	설원희	장성주	장수진	장영자	장용훈	장정아
김세현	김수정	김수혜	김승호	김애희	성기원	성미경	성춘선	손문경	손문기	장현규	장현숙	장혜령	전미나	전완기
김연정	김영삼	김용기	김원정	김윤숙	손문배	손문준	손영지	손유진	송옥진	전일배	정경환	정민정	정민주	정수덕
김윤승	김은경	김은기	김은숙	김은아	송정선	송충근	송혜란	신근화	신대성	정승엽	정승원	정애경	정민현	정영희
김은혜	김인관	김자옥	김재영	김주하	신선균	신순철	신승철	신영주	신혜선	정용제	정원호	정윤성	정의숙	정재훈
김준호	김지수	김태은	김태형	김평중	심대식	심우찬	심장식	심정식	심형석	정진희	정현도	정혜욱	정희정	조경현
김필수	김한나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안나현	안여진	안정미	안정선	안지명	조기한	조세진	조송미	조아라	조윤희
김현정	김현직	김현학	김혜란	김혜림	여윤희	여수경	여운선	여현정	염광철	조윤경	조일호	조창호	조태욱	주덕윤
김혜영	김항희	나명경	나선미	나윤일	오경애	오병두	오정철	오종진	오하진	주영성	주진원	지동현	진희경	차지현
나윤찬	남기현	남수영	남현우	노선주	용도연	우정현	유인숙	유혜선	윤민희	최명범	최미숙	최민서	최병욱	최봉탁
노유경	도세훈	도창현	라미희	류담주	윤성주	윤송화	윤은주	윤정아	윤천성	최서영	최성실	최소영	최승만	최영복
류재식	류호연	류효순	류희만	문보영	윤희수	유희자	이기영	이경림	이경숙	최우란	최우혁	최원경	최유실	최윤석
					이경진	이근아	이근영	이덕영	이명자	최재봉	최지아	최지웅	탁현우	하순천
					이명희	이미경	이미진	이복숙	이사라	한경희	한남희	한문덕	한성욱	한영희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 넉넉해지는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진선 혜민 흥승기 홍원순 황부자
황영웅 황현정 강남선한목자교회 다애교
회 봉크 사랑뽕희서울연합교회 신성푸드
서비스 재키헤어타워하우스 피스코백
해피빈 한국미쓰비시

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디자인 몬스터팩토리 바이스타
박일영 베스티안재단 삼성서울병원 삼성
전자 상상홀릭 파리바게뜨수서동성당점
시슬리 엔젤리나 연진케이 글로벌기프트
토이채널 풀하우스 하상장애인복지관

일시후원

갤러리아명품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은행일원역지점
우리는교회 이마트수서점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하트하트재단

결연후원

김문성 김미나 김태권 문석주 박용덕
손선희 임장현 최미양 최재훈 최정훈
현정순 미국남가주사랑의교회

물품후원

강호동 A&NewYork JJ 게이트 구로종합



Thanks to VOLUNTEER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원봉사해주신 고마운 분들

방과후교실

김도현 김소희 신동현 신하연 양민수 오승현 유현준 이승섭
정금아 정동범 조현서 한화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4차산업혁명시대의과짜학교

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 멘토링 프로그램

김동혜 김연주 김호정 박민재 박서진 이혜리 전예원 정금아
정재근

굿맘 고서영 고혜련 김단비 김도현 김동혜

영어스토리텔링

김재우 김주영 김준서 변서윤 양호연 양희지 오은재 어유연
최연희

후원행사 및 바자회 자원봉사

고훈 권민수 김종원 책임여주는엄마

이웃더하기

김재운 손현준 이유진 최정빈

명랑마켓

김태훈 우지윤 이준혁 차승민

가족품애

김에덴 이경동 이승섭

'벗'꽃향연

이석중 최혁 이지영 조남혁 유주연

태화그레이트하모니오케스트라

남윤재 박주한 신다정 이예은 최혜민

태화초록교실

고광윤 공남혁 김경래 김미소 김보람 김윤미 김자경 김정선
김진삼 김진아 나세진 박서준 서아림 선수미 신동현 신예림
오준우 오진택 우성준 위우진 이민정 이정현 이재동 이종성
이주용 이창민 이한국 임나래 임종훈 임지영 정국화 차승주
최종문 최준환 최혜선 한재준 홍한솔 포스코A&C

가족도서실 김송이 이준혜

사랑의도시락

(소리)공현주 길태섭 김은경 노재숙 명미숙 이상희 정수진
조영희 황혜미
(배달)금보경 김강호 김건호 김민서 김민호 김보민 김연하
김은경 김정애 김태영 박서은 박재완 박찬웅 박희정 신경호
양희정 임경수 임고은 임영수 임효주 정난영 최은지

사회교육팀

김태중 오지연 이지은

강남NH 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계승희 고민주 고서영 김승현

사랑빵회

길태섭 김현주 노재숙 박현영 서금숙 엄지연 윤은진 이남경
이은미 이정심 이종경 이지희 장 명 장재희 최양신 황 경

대학생 사회봉사

김동현 김미진 김성령 김호영 노경민 노영인 동청연 박니영
박선영 박혜란 박훈희 방지영 신예찬 양미래 윤지연 이소량
이예림 이유진 이윤희 이지원 장석호 전민욱 전지원 정은호
한우재

the Galleria

LUXURY HALL



국내 대표 명품 1번지 프리미엄 백화점

갤러리아 명품관은 국내 최초의 명품 백화점으로 전세계 럭셔리 브랜드들이 집적된 최상의 명품 라인으로 명품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가 국내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는 포레르빠쥬, 스테파노 리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물론,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세터를 위한 최신 패션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갤러리아 명품관은 2016년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희망트레이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운동 프로그램과 식습관 지도, 주기적인 BMI 측정과 함께 월 1회 임직원들이 건강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희망트레이너란?

한화갤러리아 임직원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체운동, 인성과 과학 교육 등을 포함한 아동 건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https://dept.galleria.co.kr>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07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EAST, 343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WEST

태화와 함께 나눔을 실천 할 기업을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동행할 기업들의 물품후원, 기금후원, 자원봉사활동을 기다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하신 물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조직화팀 2040-1632



0635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Tel. 2040.1600 Fax. 2040.1791

www.taiwha.or.kr  www.facebook.com/taiwha